

# 박물관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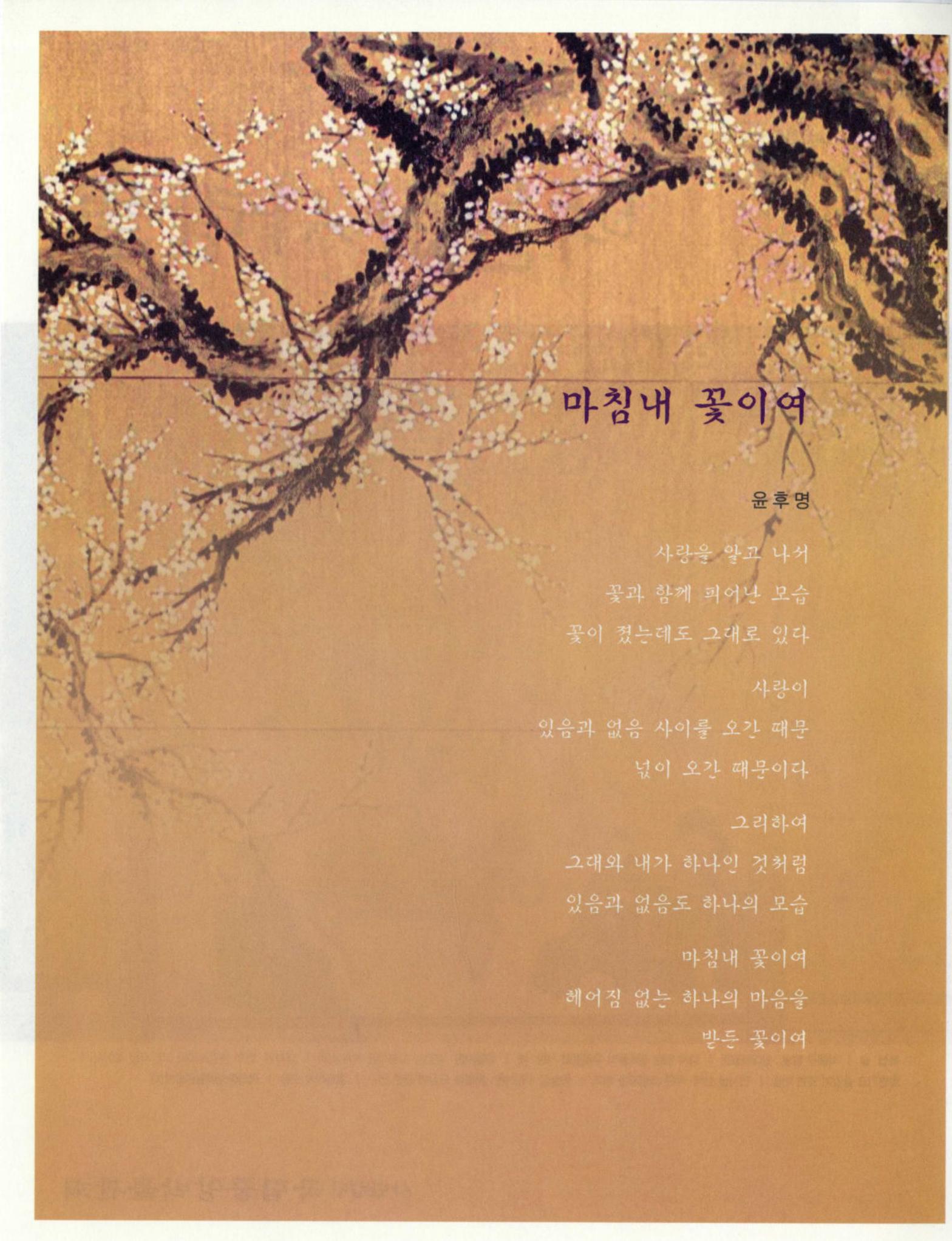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2007년 겨울 | 20호



특집 술 | 박물관 탐방 싯대박물관 | 다시 읽는 선비들의 우리문화 사랑 城 | 유물사랑 경천사 십층석탑 복원 비화 | 답사기 탑의 풍경소리와 그림자를 찾아서 | 회원기고 술읽에 맞힌 이슬 | 전시실 산책 푸른 그림자를 베고 | 학술상 수상논문 崑崙奴 도상에 관한 연구 | 홈페이지 오픈 | 국립중앙박물관회 안내

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회



# 마침내 꽃이여

윤후명

사랑을 알고 나서  
꽃과 함께 피어난 모습  
꽃이 졌는데도 그대로 있다

사랑이  
있음과 없음 사이를 오간 때문  
넓이 오간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있음과 없음도 하나의 모습

마침내 꽃이여  
헤어짐 없는 하나의 마음을  
밭든 꽃이여



## 우리 전통주

“天帝의 아들 해모수가 하백의 세 딸을 보고 반하여 새로 웅장한 궁실을 지어 그들을 초청하였다. 세 처녀가 술대접을 받고 만취한 후 돌아가려하자, 해모수가 앞을 가로 막고 하소연 하였으나 들은 도망치고 제일 만연니인 유화만이 붙들려 해모수와 인연을 맺어 고구려의 시조 주몽을 낳았다…….”

『제왕운기』(古三國史)에 실린 고구려 건국담 중 일부인데, 이것이 우리나라 문헌에 기록된 최초의 술 이야기이다.

술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그 기원을 명확히 알 수는 없다.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술을 우연히 인간이 마시게 되면서 술의 역사가 시작되었을 것으로 본다. 인류가 만든 가공 음료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동서양의 신화나 고서에서 술은 빠짐 없이 등장하였다. 술은 사람들이 살아온 자연환경과 사회·문화적 특성을 담고서, 인류와 함께하며 발전해 왔다.

술의 어원은 술 빚는 과정에서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유한 우리말은 ‘수블’, ‘수블’이었다. 발효과정에서 불로 가열하지 않아도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신비로운 현상을 보고, ‘물에서 불이 붙는다’는 생각에 물을 뜻하는 수와 불이 합쳐져 ‘수블’이라고 했을 것이다. 점차 수블>수울>수을>술로 변화되었을 것으로 본다. 酒의 기원도 양조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술의 침전물을 모으기 위해 밑이 뾰족한 항아리에서 발효시켰을 것으로 생각되어, 밑이 뾰족한 독 모양의 상형 문자에서 변천된 ‘酉’와 양조용수의 ‘水’가 합쳐져 만들어졌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경사회였으므로, 이른 시기의 술은 穀酒였을 것이다. 처음에는 빚는 방법이 세련되지 못하여 걸쭉한 탁주 형태로 짐작된다. 제천의식인 영고·동맹·무천 등의 행사에서 ‘晝夜飲酒歌舞’를 행했다는 기록이 있다. 신에게 바쳐지는 행사에서 신과 인간을 하나로 묶는 수단으로 술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술을 빚는데 누룩을 처음 사용하게 된 것은 삼국 시대였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좋은 술을 의미하는 미온과 지주, 막걸리나 예주를 뜻하는 요례라는 말이 나온다. 이로써 이 시대 술의 발전 수준을 짐작해 본다. 『齊民要術』에 고구려의 술 빚기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남아있다. 일본 응신천황 때 백제의 수수보리라는 사람이 누룩을 써서 술 빚는 법을 가르치고 일본의 酒神이 되었다한다. “수

수보리가 빚어 준 술에 내가 취했네/ 마음을 달래 주는 술/ 웃음을 주는 술에 내가 취했네”라는 응신 천황이 지은 노래가 전해진다. 신라주의 명성은 당나라까지 알려졌다. 폐백음식에 장·된장·젓갈 등과 함께 술과 단술이 포함되었으며, 양념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고려 시대엔 청주류·탁주류·재제주류·감주류 등 종류가 다양해지고, 질적 변화도 가져왔다. 궁중에서는 良醞罍라는 부서를 두어 왕이 마시는 청주와 법주를 빚었다. 사원에서는 여관업을 겸하면서 술을 빚어 팔기도 했다고 한다. 당시 술은 멥쌀을 이용하여 맛이 박하고 빛깔이 진하며 별로 취하지 않는다고 고려도경에서 평하고 있다. 고려 때 소주가 들어오는데, 아라비아에서는 아라크(arag), 원에서는 아라길주, 만주어로는 아래기(araki), 개성에서는 아랑·아락주라고 하였다. 명칭으로 보아 아라비아에서 원, 만주, 고려로 전해진 것으로 본다. 특히 몽고군의 병참기지가 있던 안동과 개성은 소주의 명산지가 되었다. 송·원과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중국의 양조법과 함께 마유주·양주·포도주·상존주·백주 등이 유입되었다.



조선시대에 와서 술은 전성기를 이루며, 각 고장의 기후·풍토와 생활에 알맞도록 발전해갔다. 독특한 재료를 써서 누룩을 만들고, 꽃이나

열매·약초 등도 술의 재료로 사용했다. 또한 멥쌀에서 찹쌀 위주의 양조로 바뀌었다. 발효기법도 단양주법(찐밥과 누룩, 물을 버무려 술을 얻게 된다. 이렇게 한번 담금으로 끝마치는 술) 위주에서 중앙주법(밑술을 먼저 만들고 나서 다시 덧술 과정을 거침)의 증류주로 발전했다. 이때 명주로 꼽힌 것이 삼해주, 이화주, 청감주, 춘주 등이 있다. 집안의 제사와 경조사에 쓰일 술을 직접 빚어 사용했으며, 지역마다 집집마다 비법의 家釀酒가 만들어졌다. 지방별 명주로 약산춘(서울), 호산춘(여산), 노산춘(충청), 벽향주(평양), 이강주(전라) 등이 있다. 조선시대의 여러 차례 금주령은 대량 양조보다 각 가정에서 빚어 마시는 가양주가 널리 퍼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조선 말 맥주·고량주·일본청주 등 수입양주가 밀려들어오고, 일제의 주세법 실시와 자가양조 금지로 인해 전통주들이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흔히 술은 담근다, 빚는다고 한다. 정성을 다한다는 의미이다. 예로부터 훌륭한 술을 빚는 데는 여섯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좋은 쌀·잘 띄운 누룩·술 빚는 도구와 주변의 청결·좋은 물·좋은 그릇·술이 잘 익는 온도유지가 필요하다. 쌀을 선택하면서부터 술이 익기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술을 빚는 사람의 마음가짐 또한 중요하다. 예전에는 몸을 정갈히 하고 깨끗한 의복으로 갈아입고 술 빚기에 임했다고 한다. 자연이 준 선물에 인간의 정성이 더해져 한 잔술에도 달고, 시고, 쓰고, 떫고, 매운五味가 느껴지고 향 또한 뛰어난 것이 아닐까.



우리 술은 탁주와 약주·소주로 분류된다. 탁주는 가장 오래된 술이다. 고두밥에 누룩과 물을 섞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체로 걸러 뿌옇고 텁텁하게 만든 술을 말한다. 약주(청주)는 익은 술을 잘 가라앉혀 맑은 술만 모아 놓은 것이다. 일반 양조주는 알코올도수가 낮아서 오래두면 식초가 되거나 부패한다. 이런 단점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소주이다. 발효가 끝나 술이 완성되면 소줏고리에 증류한다. 알코올도수가 높아 장기보존이 가능하다. 술 빛는 횃수에 의해 단양주·이양주·삼양주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빛는 방법, 밑술 제조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기도 한다.

우리 민족은 계절에 따른 다양한 세시풍속이 있다. 각종 재료를 이용하여 절기에 맞춰 술을 만들어 마셨다. 이를 節氣酒라 한다. 설날 정성을 다해 차례상에 올리는 歲酒와 정월 대보름에 마시는 찬술인 耳明酒는 겨울철 대표적인 술이다.

봄철 술로는 삼진날의 진달래 향 가득한 두견주, 단오의 창포술, 배꽃 필 무렵 빛는다는 梨花酒가 있다.

유뚝날에는 주로 동동주와 막걸리로 유두음을 즐겼다. 백중날 일꾼들이 하루를 쉬며 마시는 農酒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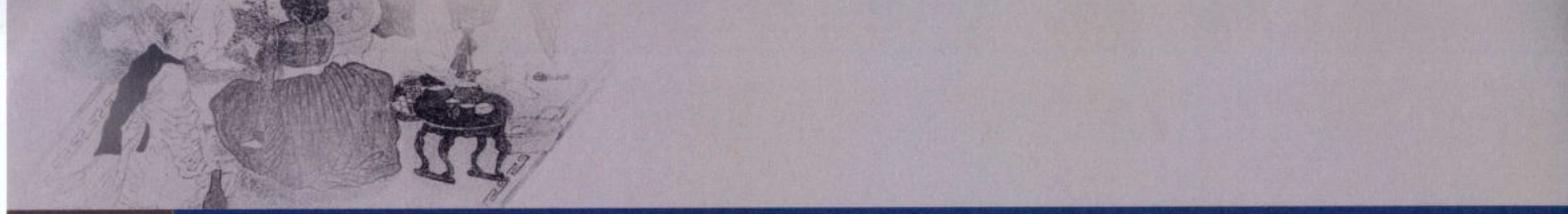
여름철 더위에 지친 몸을 추스리고 일의 능률을 높여주었다. 조상과 자연신에 감사함을 올리기 위해 한가위에 햅쌀로 빛는 신도주, 黃菊의 향기가 담긴 중양절의 국화주 등은 가을 절기주이다.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면서,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모여 앉아 음식과 술을 즐기며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었다.



술을 빛는 용구로는 누룩고리·용수·술체·챗다리·챗도리·소줏고리·체판·자배기 등이 있다. 누룩고리는 누룩을 성형하기 위해 일정한 형태로 만든 틀이다. 용수는 대나무로 엮어 짠 것으로, 술독에 넣어 청주로 거를 때 쓴다. 챗도리는 주둥이가 좁은 그릇에 옮겨 담기 편하도록 쓰는 도구로 깔때기라고도 한다. 소줏고리는 주정 함량이 높은 소주를 만들 때 쓰는 증류기이다. 작은 생활용구 하나에서도 우리 조상들의 과학적 지혜가 담겨있다.



생활 속의 예를 중시한 우리 민족은 정성으로 빚어낸 술을 마실 때에도 바른 마음가짐과 예법을 따랐다. 절제와 예의를 갖추면서 맛과 흥을 느끼고자 한 것이다. 마시는 사람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술. 개인의 인격을 나타내주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한다. 요즘 유행처럼 외국 술 배우기가 한참 붐을 이루고 있다. 우리에게도 그에 못지않은 귀한 술들이 많은데 관심이 적어 아쉽기만 하다.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야!”라는 어느 명인의 말이 귓가에 맴돈다. ♡



## 잔 들어 밝은 달을 맞이하고



이별을 힘겨워하고 애답아 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이 마찬가지로이다. 술의 힘을 빌려 그리움을 떨치고자 애쓸 때, 자연 역시 한 계절을 보내기 힘들어 한다. 그래도 자연의 이치는 거스를 수 없는 법. 모든 생명체를 잠재웠던 겨울의 삭풍도 새 생명의 피어남을 막지 못한다.

이른 봄, 오랜만에 물결이 잔잔하다. 하늘도 물도 봄을 알리는 開花 앞에서 숨이 멎어 버린 듯하다. 조각배 위에 기대앉은 노인은 술잔을 앞에 놓고 언덕 위의 꽃을 마냥 바라보고 있다. 뱃사공은 매서운 꽃샘추위에 몸을 떠다. 김홍도는 「舟上觀梅圖」에서 물끄러미 꽃을 보는 노인을 그렸다. 노인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단지 꽃구경만 하는 것일까. 아니면, 지난 세월을 가슴으로 느끼고 있는지도. 서글픔이나 쓸쓸함보다 노년의 여유로움이 느껴진다. 하늘에는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만개한 꽃이 가득하다. 따뜻한 주황색 도포를 입은 노인이 세련된 백자 술병을 앞에 두고 있는 모습은 한없이 느긋해 보인다. 고운 자태를 뽐내는 매끄러운 술병과 받침 위에 놓인 술잔은 영화로웠던 시절의 흔적이 배어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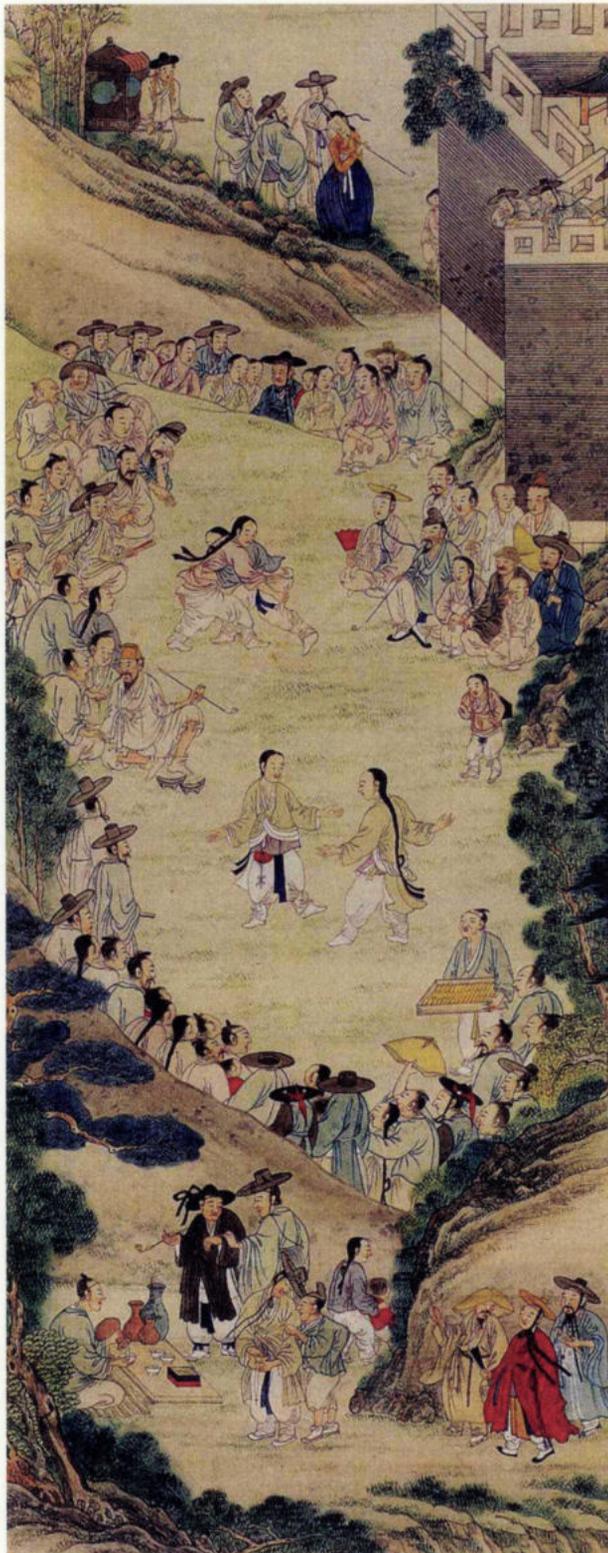
다. 이른 봄날의 풍경은 한 점 도자기 속에도 녹아 있다. 백자청화매화문각병에는 추위를 이기고 막 피어난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다. 청초한 파란 꽃잎이 하얀 백자 위에 더욱 선명하다. 술을 부어 따른다면 그 출렁거림에 같이 흔들리다 잔속으로 빠져버릴 것만 같다. 은은한 매화의 향긋한 내음이 온 몸에 퍼지리라.

오래전 영웅호걸들은 우렁찬 목소리로 술잔을 들며 올렸고, 선비들은 자연 속에서 때를 기다리기도 하고 술과 함께 시를 읊기도 하였다. 서민들 역시 한잔 술로 하루의 고단함을 풀고 서로의 정을 나누었다.

고구려 무용총 벽화에서는 손님을 접대하는 주인의 모습이 보인다. 각자의 상 위에 검은 그릇이 여러 개 놓여있다. 상 뒤로 음식이 담겨있는 커다란 접시와 검은 병이 있다. 병 모양이 특이하다. 조선의 달항아리 처럼 좌우대칭이 전혀 안 맞는다. 흑과 백의 차이일 뿐 시대를 앞서는 자유분방함이라고 할까. 꽃을 꽃았다면 그 화려함이 이를 데가 없고 술을 담았다면 시가 저절로 나올 것만 같다. 검은 그릇은 백제의 제사 유적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검은 토기 백제잔은 그 형태나 손잡이가 아주 현대적이다. 몽촌토성에서 나온 잔 역시 지금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 벽화에서 검은 그릇에 손님을 접대하듯 백제 잔의 주인도 아마 잔 가득 술을 부어 손님이나 벗에게 권하기를 즐겨했으리라.



문득 「野宴」의 술잔이 떠오른다. 추운 늦가을 마을 뒷산에서 추위에 떨며 고기를 굽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 옆에 빨강과 파란 술잔이 놓여 있다. 색깔이 다르지만 그림에도 무용총 벽화와 같아 보인다. 삼국시대까지 귀족들은 칠기를 많이 사용했다고 한다. 야외의 연회에도 무거운 도자기 보다 가벼운 칠기를 지니고 다녔을 것이다. 신선들의 연회나 등장하는 빨강과 파랑색을 자신의 그림에 넣고 싶은 화가의 마음 아닐까. 누구나 꿈꾸고 있는 천상의 세계를 염원하는 마음이다.



신윤복의 「태평도」는 서민들이 즐겨 마시는 술이 재미있게 표현되었다. 태평성대를 꿈꾸는 이 그림은 좌판에 질펀하게 앉아 술을 파는 상인이 나온다. 상인의 상술이 아주 뛰어나다. 사발에 한잔씩 따라 놓고 술 냄새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한 잔하고 싶은데 말리는 친구나 속닥거리며 주머니를 풀게 하는 사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모습은 똑같다. 술의 색깔이 탁한게 아마도 막걸리로 보인다. 술병 역시 크고 입구가 넓으며 모양도 둔탁하다. 상류층이 애용하던 소주 같은 증류주는 알코올 도수가 높아 술병의 입구가 좁고 가늘었다. 양반들의 술자리처럼 안주도, 기녀도 없지만 술 한잔 걸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 더욱 흥겹다.

조선시대에는 수많은 금주령이 있었다. 금주령을 묘사한 그림인 「後園遊宴」은 악기까지 연주하며 즐기는 것으로 보아 금주령을 무색하게 한다.

태평성대의 즐거운 일을	升平樂事
잔치를 열며 크게 기뻐하도다.	武讌孔嘉
새로 내린 금주령이 지엄하니	新禁至嚴
낚시나 하면 어떠하리오.	釣伊將何

좋은 음악과 아리따운 의녀와 한잔 술로 세월 가는 줄 모르는데, 어찌 낚시만으로 만족하겠는가. 입에 발린 말일 뿐. 그림 속의 글만이 금주령을 나타내고 있다. 특이하게 의녀가 등장하며 자세히 보면 술잔에 손잡이가 있다. 고려시대에도 귀족층은 화려한 손잡이가 달린 술잔이나 받침이 있는 고급



꽃 사이 놓인 한 병의 술을      花間一壺酒  
 친한 이 없이 혼자 마시네.      獨酌無相親  
 잔 들어 밝은 달을 맞이하고      舉盃邀明月  
 그림자를 대하니 셋이 되었구나.      對影成三人  
 달은 전부터 술 마실 줄 모르고      月既不解飲  
 그림자는 부질없이 흉내만 내는구나.      影徒隨我身

「月下獨酌」- 이백

술과 시와 자연을 즐겼던 이백.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관에는 그의 술병이 있다. 청나라 康熙時期 왕실용 자기 중의 하나로, 당나라의 주객인 이백을 기린 술병이다. 파르스름한 청자 빛을 발하는 입구는 좁다. 붉은 석양에 무거운 구름이 끼어 있는 듯한 몸체에는 그가 좋아했던 달처럼 둥그런 交龍이 얇게 새겨 있다. 구름을 헤치고 용이 승천하면 어둠이 걷히고 순청자의 둥그란 달이 떠오를 것이다. 그 달과 벗하며 빨간 잔에 술 따르고 세상의 시름을 잊으리. **리**



스러운 것을 선호했다. 커다란 사발에 벌컥 마시는 서민들에 비해 체통을 중시하는 양반들은 어느 곳에서나 격식을 차렸나보다.



# 묵묵히 베풀은 세월의 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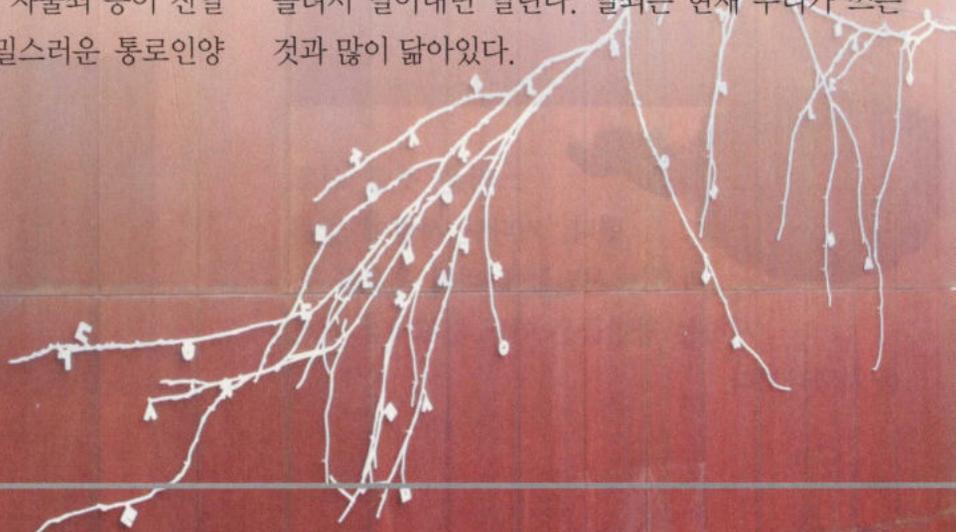
- 쇧대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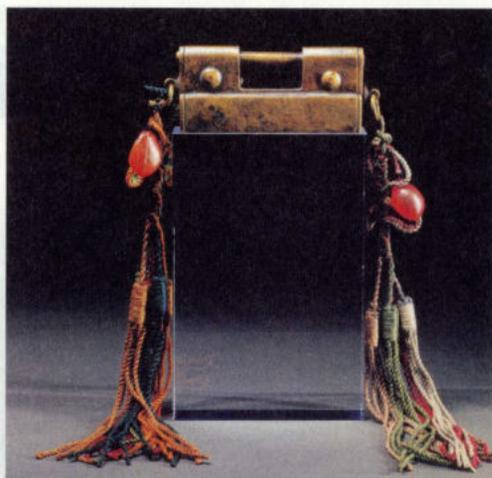
젊고 활기찬 동승동 거리를 걷다보면 그곳 풍경과 사뭇 다른 건물을 만나게 된다. 쇧대박물관이다. 자물쇠를 형상화하여 지어졌다는데 외관은 쇧를 길게 늘어놓아 묵중함을 느끼게 한다. 그 위에 덧붙인 나뭇가지 형태의 문양 끝에 한글의 자음이 꽃처럼 피어있다. 박물관으로 이어진 계단에서 내려다보면 건물 중앙의 공간이 마치 한옥의 마당처럼 아늑하다. 2·3층 전시실의 유물들이 통유리를 통해서 보인다. 야외 갤러리를 연상케 한다. 햇살 가득한 건물위의 네모난 구조물 속에서 파란하늘은 그대로 그림이 된다.

이곳엔 최홍규관장이 오랜 기간 수집한 유물 중 300여점을 엄선하여 전시한다. 여러 형태의 자물쇠·빗장·열쇠패와 세계 각국의 자물쇠 등이 진열되어있다. 박물관 문을 열면 비밀스러운 통로인양

다소 어두워 살짝 긴장되기까지 한다. 전시실 중정의 동자석 한 쌍이 우리를 맞는다. 법정스님이 쓴 '쇧대' 라는 현판이 보이는데 이는 열쇠의 방언이다. 세련된 전시실 분위기가 유물을 돋보이게 한다. 전체 조도는 낮추고 유물 중심으로 조명을 하여 또렷하게 감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된 ㄷ자형자물쇠는 자물통 측면 열쇠구멍에 ㄱ자형의 열쇠를 꽂아 밀어 넣으면 속청과 죽대가 빠져나와 열리게 된다. 삼국시대 이후부터 사용되었으나 조선후기의 것이 많이 남아있다. 무쇠자물쇠의 투박함에 정감이 간다. 함박형자물쇠 중앙하단의 둥그런 돌출부가 참외 배꼽을 연상시킨다. 경상도 특히 통영 근처에서만 사용되었다는데 돌려서 밀어내면 열린다. 열쇠는 현재 우리가 쓰는 것과 많이 닮아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비밀자물쇠이다. 비밀 자물쇠라니!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이 인다. 시연하는 큐레이터의 손놀림을 따라가느라 눈이 바빠진다. 감추어진 열쇠구멍을 찾기 위한 몇가지 조작단계를 거쳐야 자물통을 열 수 있다. 주로 서류함에 사용하였으며 주문제작 되었다. 하나쯤 가지고 싶어진다.

전통자물쇠는 잠금기능 외에 장식의 역할·길상 문자를 새겨 넣어 복을 비는 주술적의미도 가지고 있다. 잘 때도 눈을 감지 않는 물고기의 생태를 상징적으로 활용한 물고기형자물쇠는 꽤 사실적이다. 재산을 잘 지킬 뿐 아니라 다산이나 화재예방에 대한 기원도 숨어있다. 고려시대 것으로 보이는 금동용두형자물쇠가 빛을 뿜어낸다. 비록 일부분만 남아 있으나 얼마나 화려하고 섬세했는지 짐작된다. 성문이나 궁궐 문에 부착하여 사용한 길쭉한 선형자물쇠는 생소해 보이는데 방 문고리에 손가락을 꽂는 원리와 같다.

한쪽 벽에는 빗장들이 둔테(빗장걸이)와 함께 나란히 전시되어 있다. 거북모양의 둔테는 거북이 머리가 위 아래로 움직이며 빗장의 오목한 홈에 걸려 쉽게 빠지지 않는다고 한다. 다양한 열쇠패도 눈길

을 끈다. 보통 목각으로 만들어진 패에 열쇠들을 묶어 관리하였다. 비단 끈에 별전을 꿰어 단 혼수용 열쇠패는 보기에도 상당히 화려하다. 시집가는 딸을 위한 부모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으리라.

동양은 '지킨다'는 자물쇠에 의미를 둔 반면, 서양은 '연다'는 열쇠 중심의 문화가 발달하였다. 여러 나라의 독특한 자물쇠를 보며 그들의 문화를 엿보는 것도 색다른 즐거움이다. 이 매력적인 박물관에서는 <세계의 자물쇠전>·<대장간전, 두석장전>, 최근의 <금누리+안상수전> 등 다양한 특별전을 열었으며 일본과 미국 순회전도 계획하고 있다.

오랜 담금질로 아름다워진 쇠가 이곳에 있다. 비록 군데군데 녹슬었으나 묵묵히 버텨온 세월이 빛을 발산한다. 선인들의 정신이 배어있다. 쇠의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보기 위해서 마음의 담금질이 필요하리라. **7월**

# 城

李泰俊

아침마다 안마당에 올라가 칫솔에 치약을 묻혀 들고 돌아서면 으레 눈은 건너편 산마루에 끌리게 된다. 산마루에는 산봉우리 생긴 대로 울명줄명 성벽이 솟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여 있다. 솟은 성벽은 아침이 첫 화살을 쏘는 과녁으로 성북동의 광명은 이 山上의 옛 성벽으로부터 퍼져 내려오는 것이다. 한참 쳐다보노라면 성벽에 드리운 소나무 그림자도, 城돌 하나하나 사이도 뻗어 드러난다.

내 칫솔은 내 이를 닦다가, 성돌 틈을 닦다가 하는 착각에 더러 놀란다. 그러다가 찬물에 씻은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면 성벽은 역시 朝光보다는

석양의 배경으로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을 느끼곤 한다.

저녁에 보는 성곽은 확실히 一趣以上の 것이 있다. 風水에 그을린 화강암의 성벽은 연기 어린 듯 자욱한데, 그 반허리를 끊어 비낀 석양은 햇빛이 아니라 고대 미술품을 비추는 환등빛인 것이다.

나는 저녁 먹기가 아직 이른 때면 가끔 집으로 바로 오지 않고 城 터진 고개에서 百岳順城路를 한참씩 올라간다.

성벽에 뿌리를 박고 자란 소나무도 길이 넘는 것이 있다. 바람에 날려 온 솔씨였을 것이다. 바람은





그 전에도 솔씨를 날렸으려만 그 전에는 나는 대로 뽑아버렸을 것이다. 지금에 자란 솔들은 이 성이 무용물이 된 뒤에 난 것들일 것이다. 돌로 뿌리를 박고 돌로 맛 벽을 쳐올려 쌓은 성, 돌, 돌, 모래 헤이듯 해야 할 돌들, 이 돌 수효처럼 동원되었을 그때 백성들을 생각한다면 城者盛民也라 한 말과 같이 과거 문화물 중에 성처럼 전국민의 힘으로 된 것은 없을 것 같다.

팔도강산 방방곡곡에서 모여든, 방방곡곡의 방언들이 얼마나 이 산 속에 소란했을 것이며, 돌 다듬는 정 소리와 목도 소린들 얼마나 귀가 아팠을 것인가. 그러나 이제 귀를 밝히면 들려오는 것은

솔바람 소리와 산새 소리뿐, 눈을 들어 찾아보면 비치는 것은 다람쥐나 바쁘고 구름만이 지나갈 뿐, 허물어져 내린 성돌엔 앉아 들으나 서서 보나 다른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멀리 떨어지는 석양은 성머리에 닿아선 불처럼 붉다. 구불구불 산등성이로 달려 올라간 성곽은 머리마다 타는 것이, 어렸을 때 자다 말고 나와본 山火의 윤곽처럼 무시무시하기도 하다. 그러나 그도 잠시 꺼지는 석양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고요히 바라보면 지나가는 건 그저 바람이요 구름뿐이다. 있긴 있으면서 아무 것도 없는 것, 그런 것은 생각하면 이런 옛 성만도 아닐 것이다. ㄷ

李泰俊 (1904-?)

소설가, 수필가, 강원도 철원 출생. 1924년 渡日, 동경에서 처녀작 <오몽녀>를 집필하였으며 이것이 『조선문단』에 입선되었다. 단편집으로는 『달밤』, 『가마귀』가 있으며, 수필집으로는 『무서록』이 있다.

# 경천사 심층석탑 복원 비화

김 유 식 |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관

나는 경주 인근 대왕암이 있는 조그만 바닷가에서 태어났다. 학창시절 홀로 저녁시간을 보내고자 갑은사 주위를 기웃거렸다. 탑 주위를 서성이면 거대한 동탑의 그림자가 나에게 다가와 살며시 속삭이기도 하였다. 탑을 좋아했던 인연 때문인지 국립중앙박물관 이전 시 유물 이전팀과 야외석조물 이전팀에서 남들이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감독 일을 맡게 되었다.

누군가 중앙박물관 이전에서 가장 어려웠던 작업을 꼽으라면, 나는 주저 없이 경천사 심층석탑 복원이라 하겠다. 모든 병을 낫게 하였다고 일명 '약황탑'으로 불리던 경천사 심층석탑은 개성 부소산에서 1907년 일본으로 밀반출되었고, 1918년 고국으로 반환되었다. 1960년 경복궁에 시멘트로 복원을 하였다. 그 후 산성비 등 여러 이유로 1995년 다시 해체하여 10년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수리한 후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실내에 복원하였다.

탑의 복원에는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다. 국립중앙박물관 건물은 이미 완공된 상태였다. 바닥은 온통 대리석으로 마감하여 장비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석탑 주위를 제외한 여타 바닥은 1톤의 하중만 가능하였다. 솔직히 말하자면 국립중앙박물관 로비에 거대한 탑을 복원하는 것은 무리한 공사였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 탑을 절반으로 나누

어 조립을 시도하였고, 완전한 형태로 복원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유물을 인수하기도 전에 탑이 위험하여 무너질 것이라는 풍문이 우리 직원들 사이에 나돌아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더해 주었다. 더욱이 장기간 수리를 담당하던 업체는 향후 공사가 어려워 질 것이 예상되어 메모장을 모두 불태워 버렸다는 소식에 하늘이 캄캄하고 애간장이 탔다.

사표 쓸 각오부터 하고 복원을 담당했던 업체 사장부터 일단 만났다. 사장은 막무가내로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수리를 담당하였던 사장조차 복원이 어렵다는데 다른 사람이 하게 될 경우, 필히 사고의 가능성이 있고, 만약 사고가 난다면 감독공무원, 문화재연구소 복원담당자, 시공자 모두가 교도소에 가게 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면서 공사기간 동안 최대한 예우를 하겠노라는 회유책까지 제시하며 승인을 받았다.

드디어 대전의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고유제를 지내고, 경찰 호송 하에 탑이 이동하는 동안 옷지 못 할 사건이 발생했다. 이 탑을 복원하는데 가장 많이 도와 준 보존실 베테랑 이용희 선생이 친정집인 연구소에서 녹차를 많이 마시고 출발 전 화장실을 다녀오지 못한 것이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유물운송은 연구소를 출발하여 정차하지 않고 서울까지 왔다. 그 바람에 화장실을 적시에 다녀오지 못한 선생님이 다음날부터 약 신세를 지게 되었다.

공사현장에서 나를 만나면 약값을 내 놓으라고 으름장 섞인 농을 던지던 진정한 박물관맨이 지금도 그림기만 하다. 만약 복원 유물이 약항탑이 아니었다면 선생님은 심각한 수준에 달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 웃음이 터져 나온다.

복원공사는 크레인 설치부터 문제가 되었다. 화물차에 장착된 ไฮ드로크레인은 9톤에 달하여 하중을 분산하여도 건물내부로 이동이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복원팀은 건축관리직 공무원이 없는 토요일 오후에 크레인을 건물 안으로 옮기기로 정하고 모든 사항은 비밀에 붙였다. 150톤 크레인이 작업차를 들어 박물관 1층에 내리는 기나긴 시간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초조함이 몰려왔다. 하중을 철판으로 분산하여 작업차량이 실내에서 자리를 잡은 순간, 먹구름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가 싶더니, 사리공 이전 기 복원 납입으로 인한 조계종의 항의 방문은 나를 인내의 시험장으로 끌어들여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답답한 마음에 때로는 복원공사에서 연장자인 큰 형님에게 공사를 종료할 때까지 개고기를 드시지 말라는 농까지 하였다.

불교경전인 조탑공덕경에는 탑을 건립하거나 무너지는 탑을 세울 때 보시 하는 사람은 모든 업장이 소멸된다고 적혀있다. 당시 피가 마르고 가슴을 죄어오는 많은 순간들이 지금도 선명하게 회상된다. '140톤의 석재들이 집중하중에 걸려 돌이 튀어져 나가지 않을까, 혹시 탑의 각도가 정확하지 않을까, 수많은 부재들이 탑 위에 무사히 안착할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하였다. 그러나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 경천사 십층석탑 표면에 모셔진 많은 부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게 마음 졸이며 복원에 성공하여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역사의 길에 딱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경천사 십층석탑을 보고 있노라면 만감이 교차한다. 나는 탑을 세운 장인의 마음으로 매일 공사현장에서 지극정성을 다했으며, 탑이 완공된 후 학예실장께 '敬天'이라는 과분한 호까지 하사받았다. 공사에 깊이 관여했던 대한통운 왕영호 부장이 타계했으며, 공사 중에 나의 어머님께도 불행이 찾아왔다. 나는 탑을 떠올릴 때마다 왕부장과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간절히 기원해 본다. 



## 탑의 풍경소리와 그림자를 찾아서

이 희 숙 | 회원

‘경주’ 하면 생각하기에도 민망한 추억이 하나 있다. 20년 전 쯤 일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경주로 가족여행을 갔다. 차창 밖의 풍경을 보던 큰 아이가 ‘엄마 저게 첨성대야?’ 하고 물었다. 내가 시선을 돌려 보니 길가에 작고 초라한 첨성대 모형 같은 게 보였다. 아마도 그 시절에 내가 상상했던 첨성대는 너무나 크고 위대한 존재였나 보다. 그래서 나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저건 모형 이란다’ 하고 대답해 주었다. 그 순간 택시 기사가 바로 정정해주었다. ‘저건 진짜 첨성대’ 라고……. 그때의 무안함이 세월이 흐른 지금도 생생하다.

2007년도 박물관 연구강좌 답사지가 경주지역으로 정해졌다. 나는 답사 전 준비로 먼저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을 찾아 갔다. ‘慶州 新羅 유적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로 사진전이 열리고 있었기 때문 이었다. 석굴암, 불국사, 남산을 중심으로 일본 고고학자 후지타 료오사쿠(藤田良策)의 유리원판을 디지털로 복원한 사진전이였다. 유적들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비교도 해보고, 지금은 유리상자 속에 갇혀서 접근할 수 없는 석굴암 내부의 모습을 모형에서 둘러보는 체험도 해보았다.

오락가락 하는 초가을 비와 함께 慶州 地域 踏査는 시작 되었다. 새벽에 토함산을 올랐다. 오르는 내내 짙은 운무에 둘러싸여 주변 경관도 보지 못하고, 일출을 기대했던 마음도 접어야만 했다. 하지만 밖으로 향하

는 시선을 거두고 내 마음을 되돌아보며 깊이 사색할 수 있어서 좋았다. 어릴 적 크게만 느껴졌던 학교 운동장이 어른이 되어 다시 가보면 작고 초라하게 보인 기억이 있다. 과연 이번에 찾아가는 석굴암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 올까?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며 부슬 부슬 내리는 빗속의 석굴암에 다다랐다.

일제는1913년 석굴암을 문화재가 아닌 일반 건축물 처럼 해체하여 콘크리트 돔을 설치하고 해체된 조각상을 조립하였다. 일본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양식의 구조물인 석굴암을 이해하기 위해 천정 구조물의 붕괴를 구실로 석굴암을 해체하였다고 했다.

사진전에서 보았던 기억을 더듬으며 석굴암의 전실, 주실, 협시불 및 감실을 살펴보았다. 완벽한 비례미를 갖추고 있어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아름답다던 본존불은 암실에서 인공조명을 받으며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우리를 맞이했다. 하지만 어느새 내 마음은 유리벽을 뚫고서 고요하고도 자비로운 모습의 본존불 곁에 머물렀다. 아! 그동안 박물관대학에 다니면서 유물을 보는 태도와 시야가 넓어진 탓일까? 뜨거운 감동과 함께 성균관대학 박물관에서 보았던 복원전의 사진들이 떠오르며 가슴 한켠이 아려왔다.

석굴암 밖에는 부처님이 내려주는 꽃비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다. 본존불을 바라보며 꽃비를 마음으로 맞으니 심신의 결림조차 풀리는 듯 하였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 애를 썼던가. 실제

로 어깨까지 뻗뻗하게 걸린 적이 종종 있었다. 언제 마음이 다시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내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못한 것들을 모두 보내주었다.

내려오는 길에 바닥에 석재들이 놓여있었다. 석굴암의 해체와 전실의 재 해체 과정에서 남겨진 부재란다. 이들 부재는 석굴암의 재 복원을 위한 중요한 자료이다. 부재들은 누워서도 온몸으로 우리들에게 말하는 듯 하였다. '선부른 복원은 후손들에게 부담과 고생만 안겨 주고, 오히려 더욱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으니 제발 조금해하지 말라고.'

마지막 답사지인 황룡사지에 도착 하였다. 드넓은 터엔 고요함만 가득하다. 황룡사는 규모나 寺格이 신라에서 가장 크고 높은 절이었다. 신라의 세 가지 보물 중 天賜玉帶를 제외한 두 가지 보물이 황룡사 9층 목탑과 장육존상이었다는 것만 보아도 그렇다. 하지만 지금의 넓은 절터에는 주춧돌만 남아있다. 나는 강의 시간에 배운 대로 옛 절터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 사이에 벽을 쌓아 금당을 지어 삼존불상을 모시고, 9층 목탑도 세우고, 종루를 지어 종을 걸고, 전체 높이가 225척이나 되는 목탑과, 182cm에 이르는 황룡사의 치미가 떠오르자 그 방대한 규모에 압도당해 상상하는 것조차도 벅찬 일이었다.

탑의 풍경소리와 긴 그림자를 되찾아 줄 그 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해보았다.

이번 답사는 그동안에 배웠던 이론들을 역사의 현장에서 접목하여 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이 계절의 길목에서 느껴지던 불안정한 내 마음도 잘 보듬어주었다. 답사를 마칠 무렵 저 멀리 기우는 석양을 배경으로 주춧돌위에 홀로 앉아 있는 사람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 모습을 보니 장석남 시인의 '경주 황룡사 터 생각'이 떠오른다.

지난 봄 경주 황룡사터엘 꼭 가보고 싶어  
거길 갔었습니다

종달새지 공중으로 떠오르다가 가라앉고  
주춧돌들 나란히 나란히 무릎 꼭 오그리고 제자리  
앉았는 자리마다

하늘도 그 주춧돌의 하늘로서 하나씩 서 있었습니다  
주춧돌 하나하나마다 앉아서 한 시간쯤씩  
아니 하루쯤씩 앉아 있어보고 싶었습니다…… (생략)

언젠가 황룡사지를 다시 찾아온다면 나도 주춧돌에 앉아 여유 있는 사색을 즐겨 보리라. 답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일제 강점기 경주지역문화재의 수리복원사례」와 「일제 강점기의 석굴암 조사 및 해체수리와 사진 촬영에 대해서」 쓴 논문을 찾아 읽어 보았다. 절반도 읽기 전에 머리가 육신육신 아파왔다. 이번엔 너무 욕심을 부렸나보다. ㄷ



## 술집에 맥힌 이슬



유 건 집 | 회원

“술에 취하지 않고 興에 취하기를 즐긴다”고 한 酒客 芝薰은 “오욕칠정의 잠재된 모든 감정을 술로 풀려는 것은 술의 邪道”라고 말했다. 하지만 많은 애주가들은 그 사도에 耽溺하여 자기감정을 노래하고 춤추며 발산했다. 술이란 원래 우리 영혼에 비를 내려 잠재우기도 하고, 기름을 부어 열정을 불태우기도 한다. 흥에 젖든 울분을 토로하던 술을 마시는 까닭이 같지 않으니, 그들이 남긴 시문도 각각 색깔이 다를 수밖에 없다.

플라톤의 말대로 시가 어떤 도취상태에서 이루어진 마음의 조각들이라면, 酩酊 四十年에 失手 한번 하지 않았다는 樹州보다는 채석강에 달을 건지러 들어간 李白이 더 詩的이다. 술은 예술과 어울려 승화될 때 더 멋스럽다. 제돈 써가며 상대에게 술 안먹어 준다고 안달하거나, 의리를 지키느라 먹기 싫은 3차 4차를 가는 것은 匹夫들의 술자리다. 수많은 시대의 酒豪들은 술과 예술을 함께 明澄하게 즐겼기에 그들의 이름과 작품이 길이 남은 것이다. 그래서 <歸去來辭>가 있고 <酒德頌>이 있다.

한낫부터 술집에서 취해 쓰러진 고려의 술꾼 林椿은 술을 擬人化하여 쓴 <麴醇傳>에서 “醇[술]의

도량과 器局이 넓고 깊어 아득하기가 만경의 물과 같고, 맑게 하려해도 더 맑아지지 않고 흔들어도 흐려지지 않으며, 座席의 風味를 주관하여 사람들에게 氣를 실어준다. 일찍이 葉法師에게 나아가 종일 얘기하니, 온 좌중이 모두 매혹되어 드디어 이름이 알려져 麴處士라 불렸다. 공경대부, 신선, 方士로부터 머슴, 목동, 이민족들도 그 향기로운 이름을 흠모하여, 매양 殷盛한 모임에 醇이 등장하지 않으면 실망하여 국처사가 없으니 재미없다고 했으니, 그때 사람들이 술을 사랑함이 이와 같았다”고 했다.

술의 풍미를 잘 표현했다. 끝없는 아량을 가지고 부귀에 관심이 없는 처사로 만족하며, 신분과 국적을 초월하여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티없이 대하는 드넓은 마음을 칭송했다.

때로는 “朝如靑絲暮成雪 [아침에 검던 머리 어느덧 희어졌네]”이나 “人生得意須盡歡 莫使金樽空對月 [인생에서 뜻한바 이루어지면 그 즐거움 마음껏 즐길 일이니, 금동이의 좋은 술을 달빛 아래 그냥 두지 말아야지]”처럼 무상감에서 오는 애상적인 감정을 술에 취해 노래한 시편들이 많다.

松江 鄭澈은 〈將進酒辭〉에서 술 권하는 내용이 좀 자극적이다.

“한 잔 먹세 그려. 또 한 잔 먹세 그려. 꽃 꺾어  
算 놓고 무진무진 먹세 그려, / 이 몸이 죽은 후면  
지게 위에 거적 덮여 주리여 매여가나 유소보장[流  
蘇寶帳]에 만인이 울며 가든 역새 속새 덩가나무  
백양숲에 가기만 하면 누런해 흰달 가는비 굵은눈  
회오리바람 불제 뉘 한 잔 먹자하고 / 하물며 무덤  
위에 잔나비 휘파람 불 제 뉘우친들 어찌리.”

자신이 술을 좋아하는 까닭으로 ‘불평한 마음, 흥겨움, 손님접대, 勸酒 네 가지를 들었던 그는 건강을 해칠까봐 임금이 말렸는데도 끊지 못하고 즐기다가 갔으니, 참으로 술로써 행복한 사람이었다. 늙어서 “年年歲歲花相似 歲歲年年人不同”의 허무를 느끼지 않는 이 몇이나 되겠는가. 이런 감정을 자극하여 술을 권하는 것이 고금을 막론하고 술사회의 일반적 정서다.

李白도 봄밤에 詩會를 열며 쓴 〈春夜宴桃李園序〉에서 “夫天地者 萬物之逆旅 光陰者 百代之過客 而浮生若夢 爲歡幾何[천지란 만물이 잠깐 쉬었다 가는 旅宿이고, 시간이란 영원을 흐르는 나그네다. 그러니 덧없는 인생 꿈과 같으니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 그 얼마냐]”고 노래했다. 이런 심정은 杜甫에게도 마찬가지였다. “細推物理須行樂 何用浮名絆此身 酒債尋常何處有 人生七十古來稀 [눈앞의 현실을 자세히 살펴보면 살았을 때 술마시며 즐겨야 하네. 뜬구름 같은 명예 죽으면 무슨 소용인가. 술빚은 가는 곳마다 널려 있는데 인생은 70을 넘기기 힘든다네]”는 〈曲江〉의 한 구절이다.

술은 이별의 장에도 빠질 수 없었다.

月下梧桐盡 오동잎 달빛 아래 다 떨어지고  
霜中野菊黃 서리 맞은 들국화 노랑기도 하네.  
樓高天一尺 누대는 높이 솟아 하늘에 닿고  
人醉酒千觴 많은 술에 그대는 취하였구나.  
流水和琴冷 물소리에 거문고 가락 더욱 쌀쌀하고  
梅花入笛香 피리소리 구슬피 매화 향에 젖는구나.  
明朝相別後 내일 아침 헤어지고 나면  
情興碧波長 푸른 물결처럼 이는 그리움 어이 할거나.  
〈送別蘇陽谷〉

황진이가 사랑하는 사람 蘇世讓을 작별할 때 쓴 이별의 술 노래다. 蕭瑟한 가을 달빛 아래 옆에는 서리 맞은 들국화 피어 있고 오동잎 다 떨어졌는데, 무릎 베고 술 취해 쓰러진 님과 내일이면 헤어져야 할 슬픔에 가슴 아리다.

떨어지는 오동잎과 냉담하게 울려 퍼지는 거문고 소리는 쓸쓸한 이별의 정이고, 노랑게 핀 국화와 매화향기 머금은 피리소리는 자신의 志節을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하늘에 닿을 듯 높은 누각에서 펼쳐진 이 장면은 바로 선계로 승화된 한 폭의 그림이다. 무엇보다 다음날 아침 別離 후에 닥쳐올 그리움이 淸澄하게 이는 푸른 물결처럼 삶의 갈피마다 다가올 것을 생각하니 말문이 막힌다. 술과 가을 달빛, 그리고 이별이 국화와 매화의 향기에 젖은 거문고 소리를 타고 시로 표현된 秀作이다. 사랑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래도 무엇보다 최고의 경지는 술 그 자체가 좋아서 자연과 함께 혼연히 어울려 시편을 남긴 주객들이다. 이 분야에서는 누가 무어라 해도 이백의 〈月下獨酌〉에 나오는 “三杯通大道 一斗合自然 [석 잔에 대도에 통하고 한말 술에 자연과 내가 구분 안 되더라]”의 名句를 빼놓을 수 없다. 그야말

로 小我が大我로 넓어지는 悟道の禪界다. 더구나 휘영청 밝은 달빛 아래 홀로 마시니, 무한한 사유의 세계가 펼쳐졌을 것이다.

思菴 朴淳이 曹處士의 山家를 방문한 시도 그렇다.

靑山獨訪神仙家 푸른 산속 신선의 집 홀로 찾아서  
袖拂秋霞坐石苔 가을 안개 소매로 쓸고 이끼 위에 앉았다네.

共醉濁酒眠月下 탁주잔에 모두 취해 달빛 아래  
잠들었는데

鶴翻松露滴空杯 학이 퍼덕이니 술잎에 맺힌 이슬  
빈 잔에 떨어지네.

푸른 산 깊숙이 자리하고 신선처럼 살아가는 조처사의 집을 혼자 호젓이 찾았다. 그리고 주인과 쌓인 정담을 나누며 안개 자욱한 개울가에 있는 널찍한 바위에 이끼 낀 자리를 도포자락으로 한 번 휘저어 쓸고 앉아 술을 마신다. 그 술잔 안에 담긴 것은 술이기보다는 情이리니, 옆에 널린 아름다운 자연과 정에 취해서 달빛 아래 잠든 정경은 한 폭의 神仙圖다. 더구나 소나무 위에 앉았던 학은 바위 위의 두 신선이 잠들었으니 무료하기 짝이 없어 날개를 퍼덕이며 화를 치니, 술잎에 맺혔던 이슬이



빈 술잔에 똑똑 떨어지는 필설로 형언키 어려운 꿈의 세계가 펼쳐진다.

李奎報는 술과 시, 거문고를 너무 좋아해서 스스로 '三酷先生'이라 부르고, 그에 걸맞게 술을 의인화한 소설 <麴先生傳>에서 '하루도 이 친구를 만나지 못하면 비루함과 인색함이 마음에 싹튼다' 고 했다. 그는 수많은 술노래를 지으면서 無何有之郷에 노닐었다.

把酒賞春春更好 술 마시며 맞는 봄은 더욱 좋아서  
起舞東風醉揮手 동풍에 소매 휘저으며 춤을 춘다네.  
花亦爲之媚笑顏 예쁜 꽃도 고운 웃음 띠우고  
柳亦爲之展眉皺 버드나무마저 눈웃음치고 있다네.

그가 쓴 <醉歌行>이라는 시로 바로 '舍自然'의 세계다. 좋아하는 술에 취하니 아무 꺼리길 것이 없이 素心으로 돌아가고, 주변에 펼쳐진 모든 것이 제대로 보여 막힘이 없는 세계에 이른 것이다. 이것이 곧 李穡이 노래한 '看花飲酒散白髮 好向東山弄風月[흰머리 휘날리고 술 마시며 꽃을 보니, 자연이 너무 좋아 풍월과 노닌다네]'의 경지가 아니고 무엇인가. 달과 음악과 시가 없다면 술은 멋이 없다. 달이 있어 술은 그 夢幻의 신비가 倍加하고, 시가 옆에서 衷曲을 마음껏 대변하며, 음률이 노래와 춤으로 그 감정을 해소시켜 준다. 그래서 술잔을 들고 달빛 아래 그림자와 함께 앉아 꽃향기 속에 마시기도 하고, 잔에 비친 달과 玄談을 나누며 그리운 사람도 생각했다. 피를 토하는 울분도 술로 써 씻어 내리고, 사무치는 그리움도 술 향기로 녹였으니 그의 가슴에는 時空을 넘어 萬有가 손에 잡힐 듯 함께했다. 이는 그들이 술을 감각으로 마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마셨기에 행복했다. ㄷ

## 푸른 그림자를 베고

하영남 | 회원

바람을 품은 하얀 돛이 내안의 시간을 이끌고 간다. 순간을 영원으로 각인시키는 곳에는 묘한 징표가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관 신안해저문화재실에서 열리는 <경덕진요 청백자-푸르름 속에 핀 순백의 미> 테마전이 그것이다. 전시실에 발을 들여놓으면 등 뒤의 현실이 사라져 버린다. 대형 선박 안으로 내가 순간이동을 한다. 전시실 입구와 천정을 장식한 대형 베너가 앞장선다. 배 안은 순풍을 만나 잠시 정박 중인 듯 고요하다. 깔끔하고 우아한 청백자가 현대식 장식대 위에 놓여있다. 나는 격조 있는

어느 집 거실로 초대 된 손님이다.

청백자의 오묘한 빛깔을 어찌 표현해야 할까? 말이 부질없어지는 순간이다. '影靑'이라고도 불렀다 한다. 하얀 백자에 푸른 그림자가 어린다는 그 말이 실감난다. 오래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음에 푸른 잔상이 남는다. 그리움처럼 아련하다. 청백옥의 신비한 색조와 질감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일지도 모른다. 송과 요의 전쟁이 한창일 즈음에 북방의 많은 백자 도공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남쪽으로 피난을 오



게 되었다. 景德鎮에 정착한 일부 도공이 이미 익혀 온 북방 백자 위에 남방 청자의 장점을 접목시켜 만든 것이란다. 동방 예술의 극치라는 청백자는 이런 힘들고 질긴 인연이 얽혀서 빚어졌다.

靑白瓷臥女人枕, 타원형의 枕面아래 긴 소매 옷을 걸친 여인이 한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비스듬히 누웠다. 발목을 덮은 옷자락이 포근한 이불처럼 그녀를 감싸고 있다. 잠시 누웠으나 어느 새 골똥한 생각에 빠진 듯도 하고, 한 천년 목을 곧추 세우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도 하다. 그녀의 표정은 한껏 태평스럽다. 중앙의 나무 기둥이 무게중심을 받친 탓일까? 누구나 믿는 구석이 있으면 느긋해지는 법이다. 그러나 한쪽 발은 바깥으로 내밀고 있다. 지금이라도 팔고임을 풀고 스르르 일어나 긴 옷자락을 추스르며 가쁜한 걸음을 옮길 자세이다.

여인 위에 완만한 곡선의 枕面이 있다. 양쪽 끝이 살짝 구부러져 제법 차오른 초승달 같기도 하고 잔잔한 호수에 띄운 쪽배 같기도 하다. 어디다 몸을 누어도 요람 속 아이처럼 잠에 빠질 것 같다. 자세히 보니 그 침면 위에 커다란 연잎이 그려져 있는 게 아

닌가. 근심일랑 아예 스며들지도 말라고 한다. 그렇다면 여인은 이미 극락에 누워 있는 것이란 말인가.

우리 신안 앞 바다 밑에서 발견된 배는 중국 원나라 寧波港을 출발하여 일본 후쿠오카 항으로 가던 무역선이다. 누가 이 베개를 주문했을까? 옥침은 서늘한 감촉 때문에 주로 여름에 사용 했었다. 늘씬한 女體 베개 받침이 팔려있으니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호사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베개가 情人과 함께 하는 잠자리보다 홀로 누운 잠자리에 어울릴 것 같다. 지난날의 황홀한 심사를 되새기거나 또 다른 해후를 상상하며 달궂진 마음을 다독이는데 쓰였으리라. 그 매끈한 침면을 쓰다듬다 잠이 들면 푸른 그림자 같은 情人이 꿈속으로 찾아들지 않았을까?

그러나 전시실의 설명처럼 남송의 여류시인 李清照의 《醉花陰》에 보이는 옥침으로 연상한다면 쉬이 잠들 수 없다. 어려서 일찍 文才를 인정받은 그녀는 금석학의 대가인 남편 조명성과 유난히 금슬 좋은 부부였단다. 벼슬길에 오른 남편과의 별리는 더욱 견디기 힘들었으리라. 옥침 속 여인이 저리 고개를 꺾고 있는 건 이청조의 탄식을 듣느라 그런 것이다.



인연이란 우연인 듯 사연을 묻고 온다. 靑白瓷蓮葉文花形蓋托과 桃形蓋은 아무래도 옥침과 한조로 보인다. 복숭아를 반으로 자른 듯 양중스런 두 개의 잔이 있다. 아래로 뺀 줄기로 손잡이를 만들고 두 매의 잎이 양쪽 언저리에 살짝 걸쳤다. 어찌보면 나래 펼친 한 마리 작은 새가 복숭아에 고개 숙인 듯하다. 잠시

# 두견 향품 백상고 대추향

안개와 구름 자욱한 긴 낮 서글픈데  
 향로의 그윽한 용뇌향은 타버렸네  
 아름다운 계절에다가 중양절에  
 비단 장막 드리운 곳에 옥침을 베고 누우니  
 늦은 밤, 홀연 서늘한 기운이 스며드네  
 해질녘 국화 곁에서 술을 마시니  
 그윽한 향이 소매를 적시네  
 닳은 시들지 않는다 하지 마세요.  
 가을 바람에 주렴이 들쳐지니  
 사람이 국화보다 여위었네

薄霧濃雲愁永晝  
 瑞腦銷金獸  
 佳節又重陽  
 玉枕紗廚  
 半夜涼初透  
 東籬把酒黃昏後  
 有暗香盈袖  
 莫道不銷魂  
 簾捲西風  
 人比黃花瘦

과육에 탐닉한 것처럼. 잔 아래 접시는 꽃잎모양인데 바닥은 옥침처럼 연잎의 잎맥이 은은히 새겨져 있다.

접시 바닥에 돌기된 삼각형 기둥이 잔을 받치고 있는 모습도 어찌나 기쁜한지. 은은한 광택과 얇살한 형태가 어우러져 더 없이 사랑스럽다.



먹으면 천년을 산다는 천도복숭아가 아닌가. 찻물을 또르르 부으면 차에 복숭아 향까지 우려날 듯하다. 보드라운 촉감에 온기가 더해진다. 찻잔을 든 손과 입술로 찻물이 스민다. 푸른 그림자가 몸으로 들어오는, 아아! 어찌 이 순간을 잊겠는가. 영혼이 영원을 맛본다. 배가 600년 동안이나 바다 속에서 잠 들었다 깨어난 것도 누군가 마신 차 탓은 아닐까.

발굴 당시의 무역선이 재현되어 있다. 유리 구멍 속의 유물을 보자 현실 감각이 살아난다. 전시실을 돌며 나는 올 가을 유난히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다. 순간을 꿈결처럼 여기며 몽롱한 잠을 잤다. 그러니 내게 스민 모든 인연에 감사드릴 밖에. 박물관 트랙의 黃菊이 노을을 받아 치자빛이다. 옥침 속 여인이 스르르 깨어나 차를 마시고 매병에 꽂힌 꽃을 보며 놀다가 인사귀 무늬 접시에 시를 쓸 시간이다. 

# 崑崙奴 도상에 관한 연구

## - 法住寺 石造人物像을 중심으로

허 형 옥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불교미술의 존상 중에서 부처와 보살처럼 격이 높지 않은 범천·제석천, 사천왕같은 天部와 기타 하급신들은 그 도상의 형성과정을 보면, 경전이나 의궤뿐만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소재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불교 도상의 계승과 변용 및 의미의 전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미술의 내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그 미술품이 제작되었던 동시대의 일반미술의 고찰이 필요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도1) 법주사 석조인물상, 총높이 213cm

이 논문에서 다룬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의 法住寺에 있는 통일신라 때 제작된 석조인물상은 불교 도상의 이와 같은 가변적이고 복합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도1). 또한 법주사의 석조인물상은 그 대중적인 인지도에 비하여 이상할 정도로 본격적인 학술적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동안 개론적

인 문화재 안내서 등에서 단편적으로 소개되면서 별다른 의문없이 통설이 정설화되는 현상을 보고 필자는 이 상에 대한 미술사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상의 명칭과 기원, 그리고 도상적인 특징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법주사 석조인물상은 조각의 양식으로 보아 통일신라 하대에 제작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상은 등신대 크기의 원각상이며 머리 위로 큰 香爐를 들고 있는 모습이 주요한 도상적 특징이다. 기존에는 이 상의 명칭에 대하여 자신의 몸을 태워 공양한다는 『법화경』의 喜見菩薩이나, 석가모니부처의 발우와 가사를 전해받아 훗날 미래의 미륵부처에게 전달해준다는 迦葉존자로 막연하게 추정해 왔다. 근래에는 이 상이 희견보살이라는 명칭으로서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이 통설의 영향력을 실감하게 했다.

파손이 심해지기 전에 촬영된 사진자료를 참조하고, 상체를 벗은 착의 형식과 협상곳은 얼굴표정, 지물과 자세 등의 형태적 특징을 고려해보면 이 상은 불교 도상학적으로 결코 보살이나 승려(나한)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를 희견보살이나 가섭존자로 단정짓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또한 부분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금강역사나 밀교의 明王像도 아니다. 상의 명칭과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

는 보다 넓은 시야와 역사적 관점이 요망된다.



도2) 향로를 이고 있는 곤륜노, 돈황 막고굴 제12굴 주실 동벽 유마 경변상도 하단, 9세기 晚唐

이 상이 지닌 형태상의 기원은 중국 미술품에서 찾을 수 있는데, 특히 唐代 돈황석굴 벽화에 그려졌던 머리 위로 향로를 든 崑崙奴 상들과 비교가 된다(도2). 법주사 상에 붙여진 희견보살이라는 명칭은 조선시대 말에 완성된 『법주사사적기』에 기록되어 있어 이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희견보살

설은 상이 제작된 통일신라 당시의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에 대한 조선시대인들의 인식과 이해의 정도를 보여주는 또하나의 역사적 자료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하나의 미술품이 지닌 수용적 측면의 역사성과 다층적 의미구조를 강조하고 싶다. 이 상이 만들어졌던 통일신라 하대의 본래적인 조형 의도와 도상적 특징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하여, 비슷한 시기 중국에서의 곤륜노 도상의 기원과 종류, 그리고 그 전개에 대해 살펴보는 작업을 선행하였다.

唐代의 분묘 미술에서 부장용품인 도용 등으로 제작되었던 곤륜노는 작은 체구, 곱슬머리, 검은 피부를 지니고 짧은 바지를 입은 사람들을 표현한 것이다(도3). 이들의 기원은 당대에 南海諸國(동남아시아)으로 여겨지는 '곤륜' 지방에서 중국으로 유입된 수많은 외국인과 노예들에서 찾을 수 있다. 각종 문헌기록과 소설, 그리고 여행기 등에서는 곤륜노를

물 속에서의 활동 능력이 뛰어난 자, 동남아시아의 향료나 약재같은 이국적인 산물을 가지고 오는 이방인, 그리고 사자나 코끼리같은 맹수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으로 묘사한다. 따라서 곤륜은 특정한 어느 지역을 지칭하는 협의의 단어라기 보다, 신비로운 미지의 세계이자 이곳에서 왔다고 여겨지는 흑인 이방인을 뜻하는 하나의 문화적·인문지리적인 총칭이었다고 할 수 있다.

흑인 이방인이라는 생각과 더불어, 중국에서 '곤륜'은 중국의 전통 신화인 不死의 신선 사상과 관련된 서방의 곤륜산 신화와 결부되어 이해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곤륜노'와 '곤륜'이라는 말은 중국인들에 의하여 혼동되거나 동일시되는 현상을 보였다.

예를 들면 唐代의 소설에서 곤륜노는 초월적인 힘을 지니고 신비한 능력을 지닌 존재로 묘사되거나 신선의 시종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唐代 곤륜노에 대한 관념은 그들이 주변에서 볼 수 있었던 흑인 이방인과, 중국의 전통적인 곤륜산 신화의 신선적 요소가 결합하여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사고방식은 미술품으로 형상화되는 곤륜노 이미지의 전형화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된다.

일반 미술품에서 곤륜노와 유사한 흑인 이미지의 이른 예는 남북조시대인 梁에서 그려지고 후대에 모



도3) 곤륜노 도용, 陝西省 禮泉縣 鄭仁泰墓 출토, 664년 경, 높이 29.2cm, 西安碑林博物館



도4) 梁職貢圖의 狼牙修國 사신, 南朝 梁 6세기 전반(宋 1077년 모사본), 견본채색, 35.5×198cm, 中國 歷史博物館

사된 〈梁職貢圖〉의 외국 사신들 초상화에서도 보인다. 직공도류의 자료는 중국 중심주의가 외부로 투영된 四夷觀을 기저로 하였으므로, 외국 사신들의 외모에 각각의 지방적 특징과 부합하는 일정한 전형성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특히 狼牙修國 사신 모습을 보면 곱슬머리와 검은 피부, 짧은 바지를 입은 복식에서 당대의 곤륜노 도상과 흡사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중국인의 시선과 선입견을 통해 묘사된 남방계통 사람들의 모습이다(도4). 이러한 종류의 인물화는 보다 후대에 그려진 〈전 염립본 왕회도〉, 〈전 남당 고덕겸 모 양원제 번객입조도〉, 그리고 〈전 염립본 직공도〉등에서도 하나의 이미지로 정형화하여 계속 답습되었다.

당대에는 아랍,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인들이 당 조정에 사신을 파견하거나 무역을 위해 중국 남부를 방문하는 등, 잦은 접촉과 교류가 있었다. 중국인들이 동남아시아인에 대해 지녔던 일정한 관념과 전형화된 이미지는 이와 같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간에 행해졌던 공식, 비공식적 루트를 통한 빈번한 교섭과 접촉을 역사적 배경으로 한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미술품 한 점이 주목된다. 부여 정림사지에서 출토된 백제의 소조상들 중에는 머리가 곱슬이고 코가 넓은

남방계의 두상 두 구가 포함되어 있다. 기존에는 이들을 막연히 무덤의 부장용품인 도용이나 서역인상으로 불러왔으나, 이들은 곤륜노상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일본서기』등의 사서에 백제와 곤륜인들의 교섭이 기록되어 있어 이 가설을 뒷받침해준다. 또한 백제가 남조 및 初唐期の 중국과 불교문화를 매개로 활발히 교류했던 역사적 정황으로 미루어보면, 백제 지역에서 이와 같은 곤륜노 도상의 표현이 발견된 것도 전혀 무리는 아니다.

唐代的 불교미술에서 곤륜노는 돈황석굴 벽화에 주로 보인다. 특히 좌우대칭 구도를 지닌 문수·보현도에서는 문수와 보현보살 밑에서 각각 코끼리와 사자를 부리는 시종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이 도상은 곤륜노들이 실제로 사나운 맹수를 잘 부렸다는 경험적인 사실에서 연유한다.

한편 유마경변상도에서 곤륜노는 공양물이나 향료같은 남해제국의 특산물을 머리에 이고 현상하는 모습으로 나온다(도5). 이는 당 조정에 조공하러 온 외국사신 모습의 일부이므로 현실 또는 세속적인 미술에서 등장하는 모티프가 불교미술에 마치 풍속화나 삽화처럼 그대로 수용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곤륜노의 형상은 현실의 반영을 넘어서 불교경전에 나오는 야차나 나찰같은 악귀를 표현할 때도 적극적으로 채택되었다. 고대 중국의 불교관련 문헌을 검토해보면, 중국인들은 험악하게 생긴 악귀와 곤륜



도5) 유마경변상도의 하단, 돈황 막고굴 61굴 주실 동벽 남축 유마경변상도, 五代

노를 동일한 부류로 생각하여 이 둘의 외모도 비슷하게 여겼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불교에서 야차와 나찰은 항상 악한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고, 팔부중에서의 야차와 밀교에서 명왕의 권속과 같이, 선한 존재나 불법에 귀의하여 불교를 수호하는 인물로 등장하기도 한다. 이런 면에서 곤륜노 도상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성격을 띠는 가변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중국 불교미술에 보이는 다양한 곤륜노 모습의 고찰을 통하여 당대에 곤륜노 도상이 지닌 중층적인 의미를 이해해보았다. 이러한 사실을 참고하면 법주사에 있는 통일신라 때의 석조인물상 역시 도상적으로는 당대 곤륜노 형상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형태면에서는 향로를 머리에 이고 있으므로 '捧향로 공양자상'으로 부를 수 있으며, 불법의 가르침을 얻기 위하여 공양을 드리는 모습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불교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상 자체가 주요한 예배대상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주 존상에 종속되는 부수적인 존재로서 특정한 맥락을 이루는 일부였을지도 모른다. 세속적 차원의 이방인인 곤륜노를 의도했다기보다, 불교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경전에서 나오는 나찰이나 야차같은 하급신을 나타냈을 가능성이 있다.

법주사 석조인물상의 제작 의도와 불교신앙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이 절의 역사에 관한 문헌기록을 바탕으로 필자 나름의 가설을 제시해보았다. 법주사는 통일신라의 승려 진표 및 그 제자인 영심과 관련된 창건연기가 전해지는 곳으로서 미륵신앙의 전통을 특징으로 지니고 있다. 기록을 보면 법주사 석조인물상의 앞쪽에는 본래 미륵불상을 모셨던 전각(산호전, 용화전)이 있었다고 하므로 이 석조인물상은



도6) 법주사 석조인물상과 석등과 석연지와 팔상전, 일제시대 촬영

가람 배치면에서 미륵불과의 관련성이 상정된다. 따라서 석조인물상은 미륵불을 향해 향을 공양하는 모습의 공양자를 표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석조인물상과 함께 이 절의 경내에 있는 비슷한 시기의 작품인 石燈과 石蓮池의 존재도 주목된다(도 6). 석등과 석연지는 일제시대의 사진을 보면 석조인물상 뒤에 한 줄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들 역시 미륵불에 대한 일련의 공양(향공양, 등공양, 정수공양)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보아 법주사 석조인물상은 불교의 가르침을 구함에 있어 공양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시각적 상징물이거나, 더 나아가 어떠한 불교적 의식과 관련하여 마련해놓은 일종의 구조물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점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법주사의 석조인물상은 唐代에 유행했던 곤륜노 도상을 수용하여 제작한 것이지만, 현재 중국에는 이 정도 수준의 독립된 곤륜노 상의 원각상은 전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법주사 석조인물상은 통일신라 미술이 당 미술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대로 이식하지 않고, 필요에 맞게 변용시킴으로써 나름의

독창성을 보여준 한 예가 될 것이다.

이상 법주사에 남아있는 곤륜노 도상의 고찰을 통해 통일신라 불교미술 소재의 다양성과 함께, 당시에는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렬한 신앙심을 바탕으로 매우 정교한 의미체계를 지닌 불교미술품이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통일신라 불교미술 문화의 복원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새

자료의 발굴 못지않게, 그동안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기존의 불교미술품들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법주사 석조인물상에 대한 본 연구는 고대 불교조각사의 방법론적인 모색을 새롭게 시도해보았다는 점에서 작지만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㉞

- 『불교미술사학』4 (2006.11)의 요약본

### ● 심사평 ●

미술사학자 막스 뢰어는 「안양 청동기 양식」이라는 논문으로 일약 하바드대학 교수로 발탁되었다. 한편의 논문의 중요성을 보는 순간이다. 「곤륜노 도상에 관한 연구」는 그 동안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법주사 〈석조인물상〉(통일신라)을 밀도있게 분석하여 그것의 형태적 시원을 밝히고, 본래 중국에서 시작된 그 도상의 시대적 변이를 추적하여 '봉향로 공양자상'으로 명명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도상학적 해석'의 방법론을 적절하게 준용하여 이 작품의 도상복원에 접근하는 일면, 나아가 그것이 신라불교의 의미체계 속에 어떤 작용을 하는가를 드러내는 데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그 작품을 통해 통일신라 미술이 唐과 구별되는 독자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밝힌 점은 학계의 소득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다.

권영필

### ● 심사평 ●

본 논문은 불교도상이 시·공간적으로 가변하는 현상의 특징을 다룬 논문이다. 이를 구명하기 위해 법주사 석조인물상(현 喜見菩薩像으로 보고 있음)을 중심으로 형태의 원류, 명칭을 찾고자 했으며, 그 결과 통일신라시대 불교조각에 나타난 신앙의 다양성과 도상의 복합성을 법주사 석조인물상에서 찾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과정에서 보물 1417호로 지정된 법주사의 喜見菩薩像은 의습, 얼굴 표정 등에서 보살상과는 거리가 있는 하급 신상의 도상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敦煌 莫高窟 159窟, 12窟, 61窟 등에서 도상적인 유사성을 찾아 지적한 후, 법주사 석조인물상은 당대 미술에 자주 등장하는 崑崙奴상과 도상적인 특징이 같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곤륜노 도상의 기원과 성격을 살피기 위해 唐代 분묘 출토품, 회화작품, 문헌기록 등을 넓게 섭렵했으며, 이들이 불교미술에 나타나는 종류와 전개 과정을 조각, 공예품, 돈황 막고굴 220窟, 335窟, 9窟 등을 통해 제시하였다.

결과, 법주사 석조인물상은 “俸香爐供養者像”임을 불교적으로 해석했고, 『俗離山大法住寺事蹟記』에서 유래한 희견보살상으로 본 조선후기인들의 견해는 당시의 신앙 경향을 반영한 역사적 자료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는 겸손함도 잃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도상해석학적 연구 방법론에서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조각사 연구에 기여한 바 뚜렷하다.

강경숙

박물관사람들의 유쾌한 커뮤니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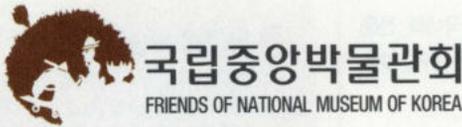
# 국립중앙박물관회 새 홈페이지 오픈

국립중앙박물관회에서 2007년 11월 우리회의  
웹페이지를 새로 오픈했다.



## + Interface Design

새 홈페이지는 우리회의 국내외 문화활동과 기  
증·기부문화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며, 회원  
들의 자유롭고 편안한 의견개진의 통로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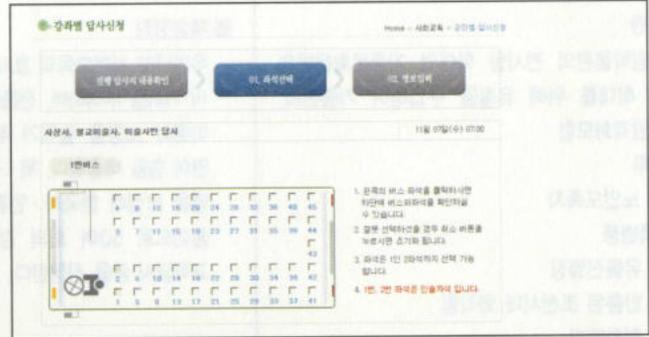


특히 새로 디자인 한 우리회의 CI는 붓의 먹물이  
서서히 퍼져 나가듯, 전통과 어우러지는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박물관사람들 **MUSEUM MEMBERS**

홈페이지 영문주소 : [www.mumes.org](http://www.mumes.org)  
국문주소 : 국립중앙박물관회

## + Experience Design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육프로그램 접수와 답사신청  
등의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관리자  
통합운영솔루션의 적용으로 온라인 자료이용과 회  
원관리에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 + Cultural Exchange



우리회는 다년간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  
내외 박물관 및 박물관 후원회와 활발한 교류를 형  
성한다. 온라인 홍보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박물관  
후원단체로서 비전과 참신한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앞으로 회원 누구나 유쾌하고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 국립중앙박물관회는 박물관을 사랑하고 배우고 느끼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박물관 후원사업

## 후원사업

박물관 전시, 연구·교육·문화사업을 지원하여 박물관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한다.

### ■ 유물기증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물 확대와 기증문화운동의 사회적 확대를 위해 유물을 구입하여 기증한다.

천전리암각화모형

청자벼루

18세기 노안도족자

화조8폭병풍

독일제 유물진열장

국외로 반출된 조선시대 화각함

베트남 청화백자

로버트 세이어의 일본제국과 한국왕국의 지도

청주군지도

위창 오세창 와전문 서예전각 10폭 병풍

위창 오세창 상형고문

기원 유한지 예서

소정 변관식 백납8폭 병풍

12세기초 인도 비슈누상

11세기 인도 미투나상 등을 구입 기증했다.

### ■ 학술연구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을 제정하여 박물관의 연구활동을 돕는다.

### ■ 사업지원

전시 공동개최와 특별전, 발굴조사 등을 지원한다.



## 사회교육

우리의 역사와 전통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소양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운영한다.

### ■ 특설강좌

우리나라 사회교육의 효시로서 일반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며, 전통문화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양을 높이기 위해 1977년 개설, 그동안 만여 명을 배출했다. 목·금요반 각 200명씩 400여 명을 모집해 한국사·인류학·고고학·미술사 등을 중심으로 50여 회의 강좌와 전시실교육, 국내외 고적답사 등을 진행한다.

### ■ 연구강좌

특설강좌를 수료한 후 지속적으로 공부하도록 개설하였다. 한국사·동양사·고고인류·사상사·불교미술·미술사·세계문화A, B 등 8개 강좌로 나누어 하나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약 1,400여 명이 수강한다.

### ■ 고적답사

1975년부터 시작해 350여 회를 넘었다. 매월 박물관·사찰·사지·발굴현장 등 국내의 주요유적 답사와 1988년부터 특별회원을 대상으로 국외답사를 운영한다.

### ■ 학술강연회

회원과 일반인에게 매년 3~5회 정도 국내외의 전문 학자를 초빙하여 박물관 특별전과 관련된 주제, 발굴 보고, 학계발표 연구내용을 강의한다.



## 자원봉사

박물관교육을 받은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 ■ 회지발간 자원봉사

기획 편집·원고 수집 정리·디자인 작업·회원 및 관련기관에 배포

### ■ 교육진행 자원봉사

박물관 특설강좌·연구강좌 교육진행 보조

## 법인회원 사용가능 박물관시설

대강당	400명	열린마당	2,500여명
소강당	200명	열린마당 옆 공간	200여명
강의실(1,2)	100명	정문 앞 광장	1,500여명
극장'웅'	800명	후원마당	400여명
버금홀	100여석	후원 매화원	100여명
거울못레스토랑	160여석	레스토랑 옆 공간	200여명

- 사용시간은 09:00~18:00 이나 박물관 사정 및 용도에 따라 다소 조정가능.
- 시설사용은 사전협의 하야 함. (일부 시설은 유료 사용).

### ☀ 원고를 받습니다

회지(전시실 산책·답사를 다녀와서·자원봉사를 하면서 등)에 글을 실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200자 원고지 12매 정도)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후원회  
국립중앙박물관 후원회  
국립중앙박물관 후원회  
국립중앙박물관 후원회  
국립중앙박물관 후원회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표지 그림 이야기**  
**신관도임연회도(新官到任宴會圖) 그림세부**  
 이 그림은 조선 후기 풍속화로 한 고을의 관아에서 열린 향연을 그린 것이다. 适餼所에서 준비한 주안상 위에는 다채로운 술병들이 묘사되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회는 박물관을 사랑하고 배우고 느끼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박물관 후원사업 · 사회교육 · 자원봉사 · 공익적인 문화사업 등을 합니다.